

“팀플레이·고독한 장군·민생대표”...여 당권주자 막판 신경전

홍영표, 송영길 겨냥 “단독 드리블” 우원식, 홍영표에 “개혁 절박함 곡해”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가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28일 막바지 총력을 펼쳤다. 홍영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안에 당을 한시도 내줘서는 안 된다. 분열에 당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송영길 후보를 정조준했다. 경선 내내 송 후보를 향해 “불안한

리더십”, “계보 논쟁으로 당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공격했는데 그 연장선이었다. 홍 후보는 “개인기를 앞세운 단독 드리블로 다음 대선에선 승리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후보가 자신의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에 노력했다고 강조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또 “대선을 치를 차기 지도부는 전시(戰時) 내각과 다를 바 없다.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펼쳐 보이겠다”면서 “우리에게 174명의 의원, 그리고 80만 명의 열정적 권리당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476주년 탄생일을 강조하며 비장한 각오를 내보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충무공 탄신일인 오늘은 전당대회 투

표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4·7 보궐선거 참패를 되새기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제가 종종 떠올리는 이순신 장군은 ‘고뇌하는 장수’, ‘고독한 장군’의 모습”이라며 “칼과 활을 직접 만들고, 농사를 지어 군량까지 직접 조달했던 7년의 전쟁을 치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만큼은 정성으로 승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늘 스스로 묻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후보는 민생대표론을 거듭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없는 계파가 소환되고, 민생개혁을 향한 절박함을 곡해하는 시도가 뒤따랐다”며 송 후보와 홍 후보를 각각

저격한 뒤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원식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어 “제가 주장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 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시 살아나고 있고, 우후죽순 백가쟁명식 부동산 정책도 제가 주장한 대로 원칙을 지키며 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이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가 시작됐다. 대선 승리를 위해 당 대표로 우원식을 선택해 달라. 민주당이 살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대상 선거인수는 71만464명(전국대의원 1만5905명, 권리당원 69

만4559명)으로, 28~29일 온라인 투표, 30일~내달 2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된다. 국민과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의 비율로 각각 반영되기 때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선거인단은 당 대표 1인, 최고위원 2인에 대해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최고위원에는 강병원·황명선·김용민·전혜숙·서삼석·백혜련·김영배 후보(이상 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5·2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이 선출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

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알게 됐다”며 “국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겨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고위원 출마 서삼석, “호남이 민주당 쇄신 주도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호남 단일후보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삼석(영암무안신안·기호5) 국회의원이 28일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고군분투 중이다. 특히 당대표 선거와 결부되면서 최고위원 선거도 더욱 치열해지고, 당권주자·대권주자와 최고위원 후보 간 연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서 의원은 ‘외로운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정치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호남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호남의 정치력을 하나로 모아 민주당 4기를 수립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면서 “호남이 민주당의 쇄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호남”이라며 “인구 대비 1000원 이상 당비를 꾸준히 내는 권리당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민주당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민주당에서 호남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의 민주당원들은 그 동안 묵묵히 당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당의 쇄신과 정권재창

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은 상황인 만큼 호남이 더 이상 민주당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호남 성과인 ‘5·18 3법제정, 한전공대 설립, 전남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 및 인공지능(AI), 전북 새만금개발’ 등 균형발전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호남의 정치적 역량이 총집결되어야 민주당을 변화시켜 민주당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서삼석이 호남민심과 민주당을 연결하는 ‘전북 대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잘못된 관행 끊자’ 국힘 의원에 가위 선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울) 국회의원이 ‘상대당의 의견과 주장을 무조건 반대했던 과거 관행을 끊어내자’는 의미를 담아 야당 의원들에게 ‘가위’를 선물로 보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법사위·문체위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4명에게 광주지역 디자인 업체에서 제작한 주방용 가위를 선물로 보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위 선물과 함께 “이 주방용 가위는 주방과 사용자의 편리함에 맞춰 디자인됐고, 이것은 ‘익숙함과 단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해야 했다. 이 의원은 아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끈질을 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반대’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상임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했고,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법안 통과에 몰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특별법 개정안은 애초가 시야문화원의 위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1차 법안과 문화전당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2차 법안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기간만 먼저 연장(1차 법안)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한 2차 법안을 반대할 우려가 커지면서 1차 법안을 철회하는 강수를 뒤야 했다. 이 의원은 “여야간 경쟁은 불가피 하지만 상대 진영의 법안과 정책을 무조건 반대했던 관행을 끊어내자는 의미에서 가위를 선물하게 됐고, 스스로도 상대 정당의 생각과 아픔을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철현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28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공사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수행하도록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성공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나도록 사후활용 사업은 진전이 없고, 시설은 노후화되는 등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주시, 시민사회가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의 주제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여수박람회의 완성은 박람회 정신과 주제를 담은 공공개발 사후활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 6층중 4층 전체, 240평
- ▶ 메리트증권회사 임대 中
- ▶ 3면이 바다 전경, 뷰 좋음
- ▶ 용자 6억8000만원 있음
- ▶ 회사사정상 급매, 15억 → 13억

거문도, 싹땅

- ▶ 여주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급매 - 평당 30만원씩

제일오피스텔

-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 20층 중 8층, 코너, 전망 좋음
- ▶ 계 108㎡, 분양 67㎡, 사무실 전용
- ▶ 즉시 입주 가, 주차 2대 무료
- ▶ 임대, 보1천에 월50만 가능
- ▶ 매매 - 1억1000만원(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